

國語의 意圖·目的形에 대하여

徐 泰 龍*

I. 序 言

국어의 복합문 구성에서 意圖·目的 構文을 표현하기 위하여 선택되는 語尾 形態들이 있다. 이들 語尾 形態는, 국어의 意圖·目的 構文 구성에 각각 고유한 통사론적 제약을 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고유한 의미론적 기능을 갖는다. 이들 語尾 形態는, 일찌기 최현배(1955)의 「우리말본」에서는 {-러}가 目的形 接續語尾로, {-려고}와 {-고자}, {-자}가 意圖形 接續語尾로 분류되어 다루어졌고,¹⁾ 허웅(1975)의 「우리옛말본」에서는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고져}, {-과더}, {-겻고}, {-려}, {-으라}, {-옷}, {-가}, {-긋디} 등이 희망, 의도, 목적을 나타내는 이음법이라 하여 모두 意圖法이란 하나의 범주로 다루어졌다.²⁾

그러나 국어문법 전반을 서술한 「우리말본」이나 「우리옛말본」에서 국어의 意圖·目的形에 관련된 현상들이 충분히 밝혀졌다고는 할 수 없다. 目的形과 意圖形의 구별 기준도 분명하지 않거니와, 이들 형태에 의해 구성되는 意圖·目的 構文의 통사론적 제약이나 의미론적 특징은 물론

* 聖心女大 助教授(國語學 專攻)

- 1) 최현배(1955) 「우리말본」 pp. 311~312에서는 “뜻함꼐(意圖形)은 어떠한 음 입을 하려 하는 뜻을 나타내는 꼐, 목적꼐(目的形)은 행동의 직접 목적을 보이는 꼐”이란 설명으로 意圖形과 目的形을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意圖나 目的이란 用語의 구별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이 用語의 구별이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이들을 묶어 意圖·目的 構文, 意圖·目的形이란 用語를 쓴다.
- 2) 허웅(1975) 「우리옛말본」 pp. 593-601에서는 {-고져/오져}, {-과더(과더여)}, {-겻고(겻고)/겻고/겻고}, {-옷}은 希望을, {-려}, {-가}는 意圖를, {-으라}는 目的을, {-긋디}는 欲望을 나타낸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서 希望, 意圖, 目的, 欲望의 구별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

이들 형태의 分析 可能性 조차도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현대국어의 意圖·目的 構文을 구성하는 語尾 形態 {-러}, {-려고}, {-고자}를 중심 대상으로 하고, {-기 위하여}, {-러}, {-고 싶어}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 의해 구성되는 意圖·目的 構文의 통사론적 제약 및 의미론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이 단순히 意圖·目的形들을 서로 비교 검토하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들 語尾 形態의 分析 可能性을 검토하고 그 결과로 分析된 基本形態素들이 意圖나 目的이란 의미 기능과 서로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국어의 복합문 구성에 관여하는 기본형태소들을 분석 인식함으로써 국어 복합문 기술을 좀더 簡明하게 體系化할 수 있는 작은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검토할 意圖·目的形 가운데 {-기 위하여}와 {-고 싶어}는 이미 {위하-}, {싶-}라는 語彙形態를 포함하고 있는 複合形態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검토의 대상으로 한 것은, {-기 위하여}와 {-러}를 비교하여 {-러}에서 副動詞 {-어}를 分析하고, {-고 싶어}와 {-고자}를 비교하여 {-고자}에서도 역시 補助動詞 {지-}와 副動詞 {-아}를 分析하기 위한 것이다.

국어의 意圖·目的形 {-러}, {-려}, {-려고}, {-고자}에서는, 국어의 關係文 구성에 관여하는 動名詞 {-고}와 接續文 구성에 관여하는 副動詞 {-어}, {-고} 등이 分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意圖·目的 構文의 통사론적 제약과 의미론적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좀더 분명하게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II. 形態論的 特徵

II. 1. 意圖·目的形의 變化 및 形態素 分析

현대국어의 意圖·目的形 {-러}, {-려고}, {-고자}는 15세기 국어의 {-라}, {-려}, {-고져}로부터 변화한 형태들로 형태론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文法形態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형태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이들 {-러}, {-려고}, {-고자}의 分析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이들의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1. 1. 현대국어의 {-러}는 15세기 국어에서는 {-라}였다. 15세기 국어의 {-라}가 현대국어에서 {-러}로 변화한 것이다.

- (1) a. 道理 비호라 나아가사(月印釋譜 1:5)
- b.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月印釋譜 1:5)
- c. 金輪王 아드리 出家하라 가느니(釋譜詳節 6:9)
- d. 밤 머그라 물러울 저기(杜詩諺解 6:6)

음운론적으로 {-라} > {-러}의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이 형태가 語幹末 母音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라}로만 나타났고 현대국어에서는 {-러}로만 나타난다. 이들 {-라}, {-러}가 分析될 수 있다면 動名詞 {-리}와 {-아}나 {-어}로 分析될 수 밖에 없다.³⁾ 그렇다면, 15세기 국어나 현대국어에서 동일하게 分析되는 動名詞{-리}을 제외한 {-아} > {-어}의 변화가 문제의 초점이 된다.

{-아} > {-어}의 변화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들을 동일한 形態素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아/-어}를 異形態로 하는 形態素는 副動詞 {-어}뿐이다. 따라서 {-러}는 動名詞{-리}와 副動詞{-어}로 分析될 가능성이 있다.

{-라} > {-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몇가지로 짐작해 볼 수

3) {-라}에서 動名詞 {-리}의 분석 가능성은 이미 李基文(1972) 「改訂國語史概說」 p.167에서 “目的을 나타낸 語尾로는 ‘-라’가 있었다. 이 ‘-라’는 動名詞語尾 ‘-리’에 處格語尾 ‘-아’ (古代形)가 붙은 것이다”라고 시사되었다.

있다. 그 하나는, 副動詞 {-아/-어}가 15세기 국어에서는 母音調和에 의해 대립되었던 異形態로 이들의 사용 빈도가 균형을 이루었지만 15세기 국어 이후에는 母音調和 현상이 붕괴되면서 {-아}보다는 {-어}의 사용 빈도가 우세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가 결합한 {-라}로부터 {-어}가 결합한 {-러}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다른 변화의 원인으로서는, 15세기 국어 이후에 이 意圖·目的形 {-라}는 命令形 {-라}와 表面에서 동일하게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意圖·目的形이 {-러}로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分析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動名詞 {-고}에 副動詞 {-아/-어}가 직접 결합할 수 없다는 국어의 統合的 特徵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태론적 구조만으로 본다면 動名詞 {-고}에 결합한 {-아/-어}가 기원적인 處格이란 李基文(1972: 167)의 假定이 오히려 타당한 것일 수 있다. 이 {-아/-어}를 處格으로 해석하면 後行 動詞가 {가다}, {오다}와 같은 移動動詞로 제약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러}에 의해 구성되는 意圖·目的 構文의 통사론적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⁴⁾ 통사론적으로 본다면 이 {-아/-어}는 오히려 副動詞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는 意圖·目的形들이 하나의 범주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體系的 기술을 위하여 {-라}, {-러}에서 分析된 {-아/-어}를 副動詞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④ “나는 공부하러 간다”와 같은 예에서 보면 移動動詞 {가다} 앞에 處所를 표시하는 단어가 表面에 없기 때문에 ‘공부하러’가 處格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예들에서는 移動動詞 앞에 處所를 표시하는 단어가 생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는 공부하러 도서관에 간다”에서도 {-러}를 處格으로 인정한다면, 이 문장은 NP+Loc+Loc+VP의 구조가 되어 單文으로 기술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국어의 문장구조가 單文에서 場所를 나타내는 두개의 處格{-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러}에서 분석된 {-어}를 處格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II. 1. 2. {-려고}의 경우도 15세기 국어와 현대국어에는 차이점이 있다. 15세기 국어에서는 {-려}만 사용되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려}와 {-려고}가 함께 사용된다.⁵⁾ 다음 15세기 국어의 예들은 {-려}가 사용되었지만, 이와 같은 接續文 구조는 현대국어에서 {-려}보다는 {-려고}가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2) a. 울모려 님금 오시며(龍飛御天歌 16)
 b. 世亂을 救호려 나샤(龍飛御天歌 29)
 c. 그의 精舍 지우려 터홀 ㅈ 始作하야 되어늘(釋譜詳節 6:35)

그러나 다음과 같이 補助動詞 {하다}가 뒤에 직접 연결되는 소위 動詞句 內包文 구조에서는 15세기 국어나 현대국어에서 모두 {-려}가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 (3) a. 夫人이 울흔 소노로 가질 자바샤 곳 것고려 ㅎ신대(月印釋譜 2:36)
 b. 沙彌 사모려 ㅎ나다(釋譜詳節 6:2)
 c. 이제 뜨 내 아득를 두려 가려 ㅎ시느니(釋譜詳節 6:5)

(2)와 같이 {-려} 뒤의 主文章이 독립된 문장구조를 이루는 接續文에서, 15세기 국어에서는 {-려}가, 현대국어에서는 {-려고}가 선택된다는 사실은 현대국어의 {-려고}에서 {-고}는 接續의 {-고}로 분석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 接續의 {-고}는, 補助動詞 {하다}가 직접 연결되어 動詞句 內包文을 구성하는 {-려고}의 {-고}와는 표면의 통사론적인 기능에서 구별되어야 한다.⁶⁾

5) 현대국어의 口語에서 {-르라고}라는 형태도 意圖・目的形으로 자주 사용된다.

(i) 나는 공부하 {-려고, -르라고} 도서관에 간다.

(ii) 벌써 가{-려고, -르라고} 이렇게 서두르나?

(i), (ii)에서처럼 {-르라고}는 {-려고}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즉, {-려고}가 文體에서 주로 쓰이는 형태라면, {-르라고}는 口語에서 주로 쓰이는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6) “가려(고) 한다”, “오려(고) 한다”에서처럼 {-려고}에 補助動詞 {하-}가 직접 연결될 때, {-고}는 임의적인 요소처럼 보이지만 이 {-고}를 임의적인

{-려고}에서 {-고}를 분석한 {-려}도 15세기 국어에서 단일형태소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허웅(1975)의 「우리옛말본」에서는 “{-려}는 어원적으로는 「-으리-」에 씨끝 「-어」가 연결된 꼴인데, 「-으리-」 앞에서는 「-오/우-」와 「-으시-」는 서로 배타적인 형태소가 되기 때문이다.”⁷⁾ 라고 하여 {-려}가 소위 未來時制의 {-리}와 副動詞 {-어}의 결합에서 발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動名詞 {-리}에도 의도범 {-오/우-}가 先行하는 다음과 같은 예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4) a. 衆生이 니불 오시(月印釋譜 8: 65)
 b. 世間에 뿔 거시 마즈며(月印釋譜 9: 18)
 c. 긴 너르래 후물 이리 업스니(杜詩諺解 25: 2)

이들은, {-리} 역시 動名詞 {-리}과 形式名詞 {이}로 분석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것은, 動名詞 {-리}, 소위 未來時制의 {-리}, 意圖·目的形 {-려}에는 모두 의도범 {-오/우-}가 先行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이들이 分布上 일치할 뿐만 아니라, 15세기 국어에서 다양한 분포를 보였던 {-리}의 기능이 현대국어에서 動名詞 {-리}과 形式名詞 {것}의 결합형인 {-리것}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려}는 動名詞 {-리} + 形式名詞 {이} + 副動詞 {-어}로 분석되는

요소로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補助動詞 {하-}가 직접 연결될 때, {-고}가 있으면 語幹 {하-}가 생략될 수 없지만, {-고}가 없으면 語幹 {하-}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이다.

- 7) 허웅(1975) 「우리옛말본」 p. 599 참조. 한편, {-려} 앞에는 대부분의 예들에서 {-오/우-}가 결합하지만 {-오/우-}와 존경의 {-시}는 배타적인 분포를 보이게 되는데, 그 이유를 허웅(1975) 「우리옛말본」 p. 760에서는 “{-오/우-}는 그 주체가 말할 이 자신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형에 있어서는 주체높임의 {-으시}는 결합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는 말할 이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에서 많은 예들의 {-려}가 話者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려}앞에 {-시}가 先行할 수도 있으므로 {-려}와 話者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데, 이 분석은 名詞 {이} 뒤에 副動詞 {-어}가 직접 연결되었기 때문에 統合的 구조상 인정될 수 없다. 결국, {-려고}를 기본형태소까지 분석 하려면 形式名詞 {이} 뒤에 copula {이-}의 존재를 인정하여 動名詞 {-고} + 形式名詞 {이} + copula {이-} + 副動詞 {-어} + 副動詞 {-고}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II. 1. 3. 현대국어의 {-고자}는 15세기 국어에서는 {-고져}였다.⁸⁾ {-고져} > {-고자}의 변화도 이들의 분석을 토대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5세기 국어의 {-고져} 뒤에는 ‘브라다’, ‘願하다’, ‘스랑하다’와 같은 동사들이 主文章의 서술어로 직접 연결되어, 主文章의 서술어에는 어떤 의미론적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5) a. 萬法의 기본 根源을 스뵈게 코져 브라노니(月印釋譜 序: 21)
 b. 惡趣를 들코져 願하노이다(釋譜詳節 21: 37)
 c. 모미 늙고 時節이 바다라온 저기 누출 맛보코져 스랑하노니(杜詩諺解 21: 7)

{-고져}에 연결되는 主文章의 서술어는 (5)와 같이 주어의 希望, 所望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었다.

15세기 국어에서 {-고져}와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되었던 {-과더}의 존재는 接續의 기능을 갖는 {-고}와 {-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 준다.

- (6) a. 一切衆生이 다 解脫을 得과더 願하노이다(月印釋譜 21: 8)
 b. 나랏일 시름하야 히 가수멸와더 願하노다(杜詩諺解 8: 52)

{-고져}와 {-과더}에는 補助動詞 {하다}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 (7) a. 未來世에 男子 女人이 오래 病하야 이서 살오져 하며 죽오져 호더 묻

8) 현대국어에서 {-고자}만이 쓰이는 것은 아니다. 方言이나 話者에 따라서는 {-고자}, {-고져} 두 형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야(月印釋譜 21 : 91)

b. 거저의 모물 버리^고져 하거든(釋譜詳節 9 : 7)

(8) a. 厄이 스러디^과더 하노니(月印釋譜 序 : 25)

b. 큰 利益을 얻^과더 하노이다(月印釋譜 21 : 128)

(5)와 (6), 그리고 (7)과 (8)의 예들에서 {-고져}와 {-과더}는 그 기능이 동일한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15세기 국어의 {-고져}나 {-과더}가 單一形態素는 아니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만약 이들이 單一形態素였다면 이들은 母音調和에 따라 {-고자}나 {-과다}로 실현되었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母音調和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 형태의 내부에 형태소 경계가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고, 따라서 이들은 분석될 수 있는 형태들임을 알 수 있다.

{-고져}는 먼저 {-고}와 {-저}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고}는 副動詞이다.⁹⁾ 그리고 {-저}는 다시 補助動詞의 語幹 {지-}와 副動詞 {-어}로 분석 될 수 있다. {-고져}에서 副動詞 {-고}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고져}에서 /ㄱ/이 탈락하여 {-오져}가 되는 조건이 副動詞 {-고}에서 /ㄱ/이 탈락하여 {-오}가 되는 조건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문장구조상으로도 동사 어간과의 통합적 구조상 {-고져}는 副動詞가 와야할 위치에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저}를 補助動詞 語幹 {지-}와 副動詞 {-어}로 분석해야만 현대국어의 口語에서 {-고자}가 {-고져}로도 실현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지-}의 語幹이 中性母音이기 때문에 15세기 국어에서는 {-어}가 결합하여 {-고져}로만 존재하던 것이, 副動詞 {-아/-어}가 결합하여 {-고자/-고져}로 되었다가 현대국어에서 單母音化에 의해 {-고자/-고져}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고자}에서 補助動詞 {지-}의 존재를 假定하는 이유는 뒤에 검토되겠

9) 李崇寧(1961) 「中世國語文法」 pp. 248~251에서는 {-고져/오져}, {-과더/와더}를 {-고/오-}系 意欲法으로 보고 이들을 소위 意圖法 {-오/우-}와 同系の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形態論的으로 {-고져}, {-과더}의 {-고}, {-과}를 意圖法 {-오/우-}로 분석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만 이 형태가 {-고 싶어}와 통사론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15세기 국어에서 {-고져}와 {-과더}의 기능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고져}와 같이 {-과더}도 接續의 {-과}와 {-더}로 분석되고, {-더}는 다시 補助動詞 {디-}와 副動詞 {-아/-어}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과더} 역시 15세기 이후 {-과다}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接續의 {-과}가 副動詞 {-고}와 형태론적으로 관련된 것임을 보여 주는데, 그것은 {-과}의 異形態 {-와}와 {-고}의 異形態 {-오}가 15세기 국어에서 동일한 음운론적 조건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과 {-과}, {-고}의 통사론적 기능이 심층에서 동일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된다.¹⁰⁾ 또한, {-과더}의 {디-}와 {-고져}의 {지-}가 동일한 補助動詞였다면 t-口蓋音化가 15세기 중앙어에서도 일어났다는 한가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1. 4. 15세기 국어의 意圖·目的形 {-라}, {-려}, {-고져}, {-과더}로부터 현대국어의 {-려}, {-려고}, {-고자}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들을 모두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보았다. 일찌기 Ramstedt(1939)의 「Korean Grammar」에서도 {-려}와 {-려}는 動名詞 {-리}과 副動詞 {-어}로 분석될 수 있는 형태로 기술하였다.¹¹⁾

그러나 이들의 형태론적 분석 가능성은 아직도 좀더 충분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단 이들이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假說로 정립하고, 다음 제 III장에서 이들에 의한 意圖·目的

10) 名詞句 接續의 {-과}는 動詞句 接續 또는 文接續의 {-고}와 심층에서 동일한 통사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과}에서 {-고}가 분석될 수 있다면 {-과}는 副動詞 {-고}와 副動詞 {-아}의 결합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고}는 대칭접속, {-아}는 비대칭접속의 기본형태소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11) Ramstedt, G.J. (1939) 「Korean Grammar」 pp. 92~93에서도, 目的形 {-라/-려}는 口語에서 {-라/-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이 {-라/-려}는 未來의 {-리}과 copula {이-}의 완료형이 결합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構文의 통사론적 제약과 의미론적 특징을 검토하고, 제Ⅳ장에서 이와 같이 분석된 基本形態素들이 意圖·目的이란 意味機能을 어떻게 의미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 (9) 假說 1: {-러}는 動名詞 {-르}과 副動詞 {-어}로 分析된다.
 (10) 假說 2: {-려고}는 動名詞 {-르}, 形式名詞 {이}, copula {이-}, 副動詞 {-어}, 副動詞 {-고}로 分析된다.
 (11) 假說 3: {-고자}는 副動詞 {-고}, 補助動詞 {지-}, 副動詞 {-아}로 分析된다.

II. 2. 形態論의 分布

意圖·目的形 {-러}, {-려고}, {-고자}와 또한 意圖·目的 構文을 구성하는 {-기 위하여}, {-러}, {-고 싶어}에 직접 先行할 수 있는 형태는 動詞語幹과 先語末語尾들이고, 이들 뒤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형태는 特殊助詞들이다. 먼저 先行 先語末語尾와의 통합적 특징을 검토하고 다음에 後行 特殊助詞와의 통합적 특징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II. 2. 1. 意圖·目的의 形態들은 敬語法을 나타내는 先語末語尾 {시}나 {음}과의 결합에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 (12) a. 아버님이 불국사를 보시 {-러, -기 위하여, -려고, ?-러, -고자, -고 싶어} 경주에 갔읍니다.
 b. 그분이 이제 떠나시 [*-러, *-기 위하여, -려고, -러, -고자, -고 싶어] 합니다.
 (13) a. 선생님을 뵈옵 {-러, -기 위하여, -려고, ?-러, -고자, -고 싶어} 학교에 왔읍니다.
 b. 학생들이 선생님을 뵈옵 [*-러, *-기 위하여, -려고, -러, -고자, -고 싶어] 합니다.

(12a), (13a)에서 {-러}가 어색한 것은 {시}, {음} 때문이 아니고 이 문장이 接續文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뒤에 {하다}가 연결된 動詞句 內包文인 (12b), (13b)에서는 {-러}가 자연스럽다. 또한 (12b), (13b)에서 {-러}, {-기 위하여}가 非文을 만드는 것은 補助動詞 {하다}가 직접 연

결되었기 때문이지 {시}, {읍}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主文章의 서술어가 {가다}, {오다}인 (12a), (13a)에서는 {-러}나 {-기 위하여}가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

意圖·目的의 형태들은 時制나 相을 나타내는 先語末語尾 {았}, {겠}, {더}, {리}에는 전혀 결합할 수 없다는 통합적 특징이 있다.

- (14) a. 학생들이 영화를 보 {-러, -기 위하여, -려고, ?-러, -고자, -고 싶어} 극장에 갔다.
 b. *학생들이 영화를 보 {았, 겠, 더, 리} {-러, -기 위하여, -려고, -러, -고자, -고 싶어} 극장에 갔다.
- (15) a. 철수는 나무를 심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으러, -고자, -고 싶어} 하였다.
 b. *철수는 나무를 심 {았, 겠, 더, 으러}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으러, -고자, -고 싶어} 합니다

(14)와 같이 뒤에 독립된 문장이 오거나 (15)와 같이 뒤에 補助動詞가 연결될 경우에도 이들 意圖·目的의 형태 앞에는 時制나 相을 나타내는 어떤 先語末語尾도 결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先行 意圖·目的의 時相은 後行 主文章의 時相을 기준으로 하여 항상 상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時制나 相의 문제는 제 Ⅲ장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이들이 時相 先語末語尾와 결합할 수 없다는 분포상의 특징만을 밝혀 두기로 하겠다.

II. 2. 2. 意圖·目的의 형태들은 뒤에 特殊助詞의 결합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16) a. 그는 책을 읽으러 {는, 도, 야, 만, 나} 도서관에 오지 않았다.
 b. 나는 밥을 먹기 위하여 {는, 도, 야, 만, 나} 인을 해야 했다.
 c. 아기가 말을 하려고 {는, 도, 야, 만, 나} 입을 벌렸다.
 d. 우리는 그를 만나고자 {*는, *도, *야, *만, *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 나는 그를 만나고 싶어 {*는, 도, 야, *만, *나} 그를 만날 수 없었다.

(16)과 같은 接續文 구조에서는 {-고자}, {-고 싶어} 다음에 特殊助詞의 결합이 제약을 받는다. 그런데 {-고 싶어}에서 {도}, {야}의 결합이 가능한 것은 접속어미 {-어도}, {-어야}로써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으러}, {-기 위하여}, {-려고}에는 特殊助詞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고자}, {-고 싶어}에는 特殊助詞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들에 이미 補助動詞 {지-}, {싶-}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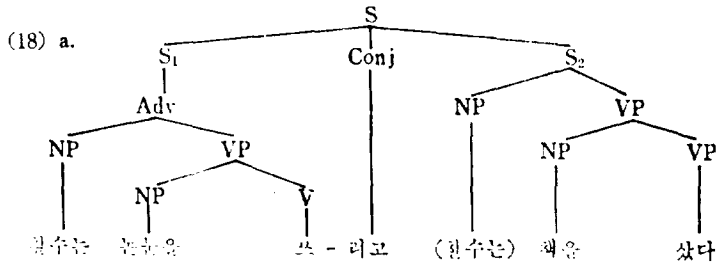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뒤에 補助動詞가 직접 연결되는 動詞句 內包文 구조에서는 補助動詞 앞에 오는 語尾에 特殊助詞의 결합이 가능하다.

- (17) a. 아이가 말을 하려고 {는, 도, 야, 만, 나} 하였다.
- b. ?아이가 말을 하러 {는, 도, 야, 만, 나} 하였다.
- c. 우리는 그를 만나고자 {는, 도, 야, 만, 나} 하였다.
- d. 우리는 그를 만나고 싶어 {는, 도, 야, 만, 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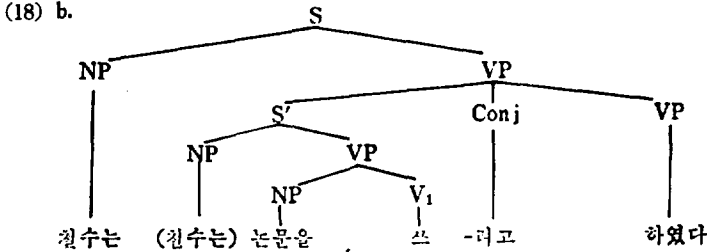
(17b)에서 {-러} 뒤에 特殊助詞가 결합하면 어색해진다. 그것은 {-러} 뒤에 補助動詞의 語幹 {하-}가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特殊助詞가 결합하면 {하-}가 생략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III. 統辭論的 制約

국어의 意圖·目的 構文은 일반적으로 (18a)와 같은 接續文의 통사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려고}, {-고자}에 補助動詞 {하다}가 직접 연결될 경우에는 (18b)와 같은 動詞句 內包文의 통사구조를 갖는다.



(18)의 수형도를 이들 문장의 심층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 (18a)는 S₁을 부사절로 보면 전체를 內包에 의한 복합문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S₁과 S₂를 독립된 문장으로 보면 意圖·目的이란 고유한 의미기능을 갖는 접속어미에 의해 연결된 接續文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 또한, (18b)도 '하였다'를 主動詞로 보면 動詞句 內包에 의한 복합문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쓰다'를 主動詞로 보면 動詞句 接續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¹²⁾ 이들 문장의 통사구조가 어떤 수형도로 표시되어야 할 것인지는 이 글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므로 기술의 편의를 위해 (18a), (18b)에는 각각 두가지 가능성을 모두 수형도에 제시하였다.

III. 1. 主 語

국어의 意圖·目的 構文에서 後行 主文章과 先行 意圖·目的文의 주어는 동일한 명사구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19) a. 철수는 책을 읽 [-으러, -기 위하여] (철수는) 도서관에 갔다.

b. (철수는) 책을 읽 [-으러, -기 위하여] 철수는 도서관에 갔다.

12) 지금까지 국어의 接續文과 動詞句 內包文을 구별하는 기준은 補助動詞의 결합 여부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補助動詞에 先行하는 語尾 {-어}, {-게}, {-고}나 {-려고}, {-고자}등이 모두 接續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先行動詞와 補助動詞의 결합은 接續의 구조를 보인다. 그리고 의미론적으로도 先行動詞와 補助動詞가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을 갖기 때문에 動詞句 內包文을 動詞句 接續으로 기술하는 것이 국어의 현상에 충실한 방법일 것이다.

- (20) a. 철수는 논문을 쓰 {-려고, -고자} (철수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
 b. (철수는) 논문을 쓰 {-려고, -고자} 철수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 (20)의 예들에서 보듯이 意圖·目的 構文에서 先行文의 主語와 後行文의 主語는 동일한 명사구이며, 이때 表面構造에서는 하나의 주어가 달라진다. 接續文의 일반적인 심층구조를 [(명사구₁+X+동사구)+접속어미+[명사구₂+Y+동사구]]로 표시한다면, 이 接續文이 意圖·目的 構文으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명사구₁’= ‘명사구₂’라는 조건과 ② ‘명사구₁→ ϕ 또는 명사구₂→ ϕ ’라는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다.¹³⁾

더구나 다음과 같이 {-려고}가 사용되어도 意圖·目的 構文을 이룰 수 없는 예들의 존재는 意圖·目的 構文의 이러한 제약을 뒷받침해 준다.

- (21) a. 비가 오려고 천둥이 친다.
 b. 날이 새려고 동이 터 온다.
 c. 반가운 손님이 오려고 까치가 온다.
 (22) a. 나무가 넘어지려고 흔들거렸다.
 b. 꽃이 피려고 봉우리를 냈었다.

(21)과 같이 先行文과 後行文의 주어가 다르거나, (22)와 같이 주어는 같지만 그 주어가 [-有情]의 의미특성을 갖는 경우 {-려고}에서 意圖·目的의 의미기능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이때에 先行文은 後行文의 意圖나 目的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려고}를 단순히 目的形이나 意圖形으로 기술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예들에서 {-려고}는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豫定하거나 또는 豫想하는 기능을 갖는다.

意圖·目的 構文의 주어는 반드시 [+有情]의 의미특성을 갖는 체언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被動構文의 예들이 분명히 보여 준다.

- (23) a. 순경이 범인을 잡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집안으로 들

13) 이 두 조건은 意圖·目的 構文의 성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 어간다.
- b. 법인이 순경에게 잡히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집안으로 들어간다.
- (24) a. 고양이가 쥐를 잡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부엌으로 들어간다.
- b.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부엌으로 들어간다.
- (25) a. 개가 먹이를 먹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집안에 들어왔다.
- b. 먹이가 개에게 먹히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준비되었다.

(23)~(25)의 a는 先行文이 主動文이고, b는 그 先行文을 被動文으로 變形시켜 본 것이다. 이때 被動化된 先行文의 主語가 (23b)와 같이 [+人間]이면 그 문장은 그대로 성립한다. 그러나 (24b)와 같이 [-人間], [+有情]이면 {-기 위하여}, {-려고}는 자연스럽지만 {-러}, {-고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 진다. 더구나 (25b)와 같이 被動化된 문장의 주어 가 [-有情]이면 意圖·目的 構文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意圖·目的 構文에서 주어의 의미특성이 意圖·目的形의 선택에 밀접한 계약을 보인다는 것은 다음 예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더욱 분명해 진다.

- (26) a. 아이들이 밥을 먹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집에 들어왔다.
- b. 소가 풀을 뜯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들판으로 나갔다.
- c. 새들이 모이를 찾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방앗간에 모여 들었다.
- d. 벌이 꿀을 모으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꽃에 날라왔다.
- e. 비가 오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먹구름이 몰려왔다.

(26)의 예들에서 {-려고}는 주어의 의미특성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려고}가 意圖나 目的 뿐만 아니라 豫想의 의미기능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와 {-고자}는 주

어의 의미특성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6b)~(26d)의 예들 가운데, {-러}와 {-고자}에 대해서는 話者에 따라 다른 판단을 보일 수도 있다. 이들 문장의 주어가 어떤 意圖나 目的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판단하는 話者는 {-러}, {-고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話者는 {-러}, {-고자}를 어색하게 받아들인다.

Gruber, J.S. (1976)에서도 目的 構文은, 주어가 [行爲者]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行爲者]가 아닐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¹⁴⁾ 이러한 기술도 意圖·目的 構文은 주어의 의미특성에 따른 통사론적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III. 2. 敘述語

意圖·目的 構文에서 先行文의 서술어가 狀態動詞이면 통사론적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최현배(1955)의 「우리말본」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우리말본」에서는, 狀態動詞에 目的形 {-러}가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를 時間에 관련된 것으로, 그리고 意圖形 {-려고}, {-고자}가 狀態動詞에 연결되어 잘 쓰이지 않는 이유도 時間에 관련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¹⁵⁾

- (27) a. 저는 이곳에 있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고 싶어} 왔습니다.
 b. 나는 걱정이 없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고 싶어} 고향으로 갔다.
 c. 영화는 아름답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고 싶어} 화장을 했다.
 d. 내일은 날씨가 맑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고 싶어} 오늘만큼 별이 밝다.

(27a)와 같이 '있다'에는 意圖·目的形이 연결될 수 있지만 (27b)의

14) Gruber, J.S. (1976) 「Lexical Structures in Syntax and Semantics」 pp. 161~162 참조.

15) 최현배(1955) 「우리말본」 p. 482 및 pp. 497~498에서 그림씨에는 목적꼴이 없고 뜻합꼴이 있는데 뜻합꼴도 잘 쓰이지 않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없다’나 (27c), (27d)의 狀態動詞에 意圖·目的形이 연결되면 非文이 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것은, 意圖·目的 構文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은 先行文의 내용을 이루어진 상태로 바꾸어 놓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先行文에 狀態動詞가 오면 이미 그 狀態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意圖·目的形이 결합할 수 없게 된다. (27c)나 (27d)에서 {-려고}나 {-고자}가 어색하지만 가능한 것처럼 판단되는 경우는 이들 狀態動詞에 [動作]이나 [變化]의 의미특성을 부가하여 사용할 경우 뿐일 것이다.¹⁶⁾

意圖·目的形은 後行文의 서술어와 文體法에 따른 통사론적 제약을 받는다. 먼저 {-러}는 主文章의 서술어가 {가다}, {오다}와 같은 移動動詞일 경우에만 선택될 수 있다.¹⁷⁾

- (28) a. 우리는 한라산을 보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고 싶어} 제 주도에 갔다.

16) 이들 狀態動詞는 補助動詞 {지다}나 {되다}와 함께 사용되어 ‘-어 지려고’, ‘-게 되려고’ 등이 되어야 意圖·目的 構文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17) 홍재성(1982) “타동성 규정은 한 문제”에서는 {-러} 뒤에 연결될 수 있는 동사를 移動動詞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移動動詞에는 {가다}, {오다} 외에도 {떠나다}, {타다} 등과 같이 어떤 目的地를 향한 행위자의 場所 移動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移動動詞 가운데, {가다}, {오다}가 先行文의 서술어가 되면 다음 (i)과 같이 {-러}가 선택될 수 없지만, 다른 移動動詞가 서술어가 되면 (ii)와 같이 {-러}가 선택될 수 있다.

- (i) a. 나는 집에 가{*러, -려고, -고자} 버스를 탔다.
b. 그는 매일 학교에 오{*러, -려고, -고자} 전철을 탄다.
(ii) a. 나는 버스를 타러 정거장에 간다.
b. 나는 여행을 떠나러 정거장에 나갔다.

(i), (ii)는 {가다}, {오다}와 다른 移動動詞들이 차이점이 있음을 보여 준다. 話者에 따라 다르지만 筆者의 직관에만 의존하면 {-러} 다음에 {가다}, {오다}가 아닌 {타다}, {떠나다} 등의 다른 移動動詞가 오면 어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과 같은 의문문에서는 {-러} 다음에 移動動詞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 (iii) a. 무엇하러 일을 합니까?
b. 무엇하러 밥은 먹느냐?

- b. 철수는 책을 읽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고 싶어} 도서관에 왔다.
- (29) a. 순이는 시험에 합격하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고 싶어} 열심히 공부하였다.
- b. 김선생은 서울을 떠나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고 싶어} 집을 팔았다.

(28)과 같이 主文章의 서술어가 移動動詞일 경우에만 {-러}가 선택될 수 있고, (29)와 같이 移動動詞가 아닐 경우에는 {-러}가 선택될 수 없다. 이 예문에서 {-러}의 의미기능은 場所를 移動하는 行爲의 目的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말본」에서처럼 {-러}를 目的形, {-려고}, {-고자}를 意圖形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장소를 이동하는 행위에만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위에도 目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려고}, {-고자}도 目的이란 의미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主文章의 서술어가 聽者에 대한 직접적인 命命이나 提案일 경우 {-러}, {-기 위하여}만이 사용될 수 있고, {-려고}, {-고자}, {-고 싶어}는 사용될 수 없다.

- (30) a. (너는) 불국사를 보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고 싶어} 경주에 가라.
- b. (너는) 책을 읽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고 싶어} 도서관에 와라.
- (31) a. (우리) 불국사를 보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고 싶어} 경주에 가자.
- b. (우리) 책을 읽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고 싶어} 도서관에 가자.

(30)과 (31)은, {-려고}, {-고자}가 意圖·目的 構文의 주어가 聽者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울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런데 주문장이 疑問이면 {-려고}, {-고자}, {-고 싶어}도 아무런 제약울 받지 않는다.

- (32) a. (너는) 무엇을 보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고 싶어} 서울
에 갔느냐?
b. (너는) 무슨 것을 하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고 싶어} 이
기에 왔느냐?

(30)과 (32)는 동일하게 聽者인 {너}를 주어로 하고 있으나 주문장이 命
令文인 (30)과 疑問文인 (32)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30), (31)
에서 {-려고}, {-고자}, {-고 싶어}가 제약을 받는 것은 主語가 聽者이
기 때문이 아니라 주문장이 命令文이나 提案文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
다.

그렇다면 주문장이 命令文이나 提案文일 때 {-려고}, {-고자}가 선택
되면 非文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意圖·目的 構文에서 移動動詞가
아닌 주문장의 서술어는 어떤 경우에도 命令이나 提案이 될 수 없는 것
인가? 물론 {-려고}, {-고자} 다음에 命令이나 提案이 나타나는 예들
이 있지만 그것은 다음 (33)과 같은 內包文에서이다.

- (33) a. 불국사를 보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고 싶어} 경주에 가라
고 하였다.
b. 책을 읽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고 싶어} 도서관에 가
자고 하였다.

(33)에서 ‘-고 하다’에 의해 내포된 문장은 命令이나 提案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러}와 {-기 위하여}는 다른 형태들과 구별된다. 즉, {-러}
와 {-기 위하여}가 선택되면 先行文을 포함한 意圖·目的 構文 전체를
내포할 수 있지만 {-려고}, {-고자}, {-고 싶어}가 선택되면 後行文 즉,
‘경주에 가라’와 ‘도서관에 가자’만을 내포한다.¹⁸⁾

결국, 意圖·目的 構文에서 주문장의 서술어가 移動動詞가 아니면서

18) (33a)에서 {-러}, {-기 위하여}가 선택되면 (i) 「나는 너에게 ‘너 불국사를
보{-러, -기 위하여} 경주에 가라’고 하였다」가 되지만 {-려고}, {-고자},
{-고 싶어}가 선택되면 (ii) 「나는 너에게 내가 불국사를 보{-려고, -고자,
-고 싶어}, ‘경주에 가라’고 하였다」가 된다.

命令이나 提案이 될 수 있는 것은 {-기 위하여} 뿐이다.

- (34) a. 시험에 합격하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고 싶어} 열심히 공부하여라(공부하자).
 b. 이 도시를 떠나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고 싶어} 집을 팔아라(팔자).

이상의 (30)~(34)에서 意圖·目的 構文의 주문장이 命令文이나 提案文일 때, 意圖·目的形의 선택 제약을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34)와 같이 주문장의 서술어가 移動動詞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러}와 {-기 위하여}가 유사한 기능을 보이고, 또한 {-려고}와 {-고자}, {-고 싶어}가 어느 정도 유사한 기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려고}, {-러}와 {-고자}, {-고 싶어}에는 補助動詞 {하다}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러}, {-기 위하여}와 구별된다.

- (35) a. 철수는 집을 사 {*-러, *-기 위하여, -려고, -러, -고자, -고 싶어} 하였다.
 b. 우리는 해외여행을 하 {*-러, *-기 위하여, -려고, -러, -고자, -고 싶어} 합니다.

(35)와 같이 補助動詞 {하다}가 직접 연결되면 {-러}도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한편, 補助動詞 {들다}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경우는 {-려고}, {-러} 뿐이다.

- (36) a. 남편이 아내를 매리 {*-러, *-기 위하여, -려고, -러, *-고자, *-고 싶어} 들었다.
 b. 갓난 아이가 술을 마시 {*-러, *-기 위하여, -려고, -러, *-고자, *-고 싶어} 들었다.

이상에서 意圖·目的 構文은, 先行文과 主文章의 서술어에 따른 통사론적 제약이 있으며, 意圖·目的形의 선택도 서술어에 따른 몇가지 제약

이 있음을 살펴 보았다.

III. 3. 否定法

意圖・目的 構文에서 主文章을 否定할 경우에는 특별한 통사론적 제약을 받지 않지만 先行文을 否定할 경우에는 意圖・目的形의 선택에 제약을 받는다.

- (37) a. 나는 그를 만나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고 싶어} 서울에
가지 않았다.
b. 나는 그를 만나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고 싶어} 서울에
안 갔다.
c. 나는 그를 만나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고 싶어} 서울에
못 갔다.

(37)은 主文章의 否定에 따른 意圖・目的形의 선택에는 통사론적으로 아무 제약이 없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先行文을 否定할 경우 意圖・目的形의 선택은 제약을 받는다.

- (38) a. 범인이 잡히지 않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고 싶어}
도망을 간다.
b. 그는 군에 가지 않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고 싶어}
이민을 갔다.
(39) a. 범인이 안 잡히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고 싶어} 도망
을 간다.
b. 그는 군에 안 가{*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고 싶어} 이민
을 갔다.
(40) a. 순경이 범인을 못 잡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고
싶어} 도망을 간다.
b. 그는 군에 못 가 {*-러, *-기 위하여, *-려고, *-고자, *-고 싶어} 순
가락을 잘랐다.

(38), (39)는 先行文을 否定할 경우, 주문장의 서술어가 移動動詞일지라도 {-러}가 선택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즉, 否定的인 내용이 意圖・

目的의 대상이 되면 {-러}는 선택될 수 없다. 한편, (40)은 否定素 {못}이 先行文에는 나타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否定素 {못}이 意圖·目的 構文의 先行文에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否定素 {못}이 他意否定的의미를 갖는 것으로 主語나 話者의 의지가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¹⁹⁾

III. 4. 時制와 相

意圖·目的 構文에서 時相은 後行 主文章에 의해 표시되고 先行文의 時相은 (41)과 같이 主文章의 時相에 따라 결정된다.

- (41) a. 철수는 어제 책을 읽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고 싶어} 도서관에 갔다.
 b. 철수는 방금 책을 읽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고 싶어} 도서관에 가더라.
 c. 철수는 지금 책을 읽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고 싶어} 도서관에 간다.
 d. 철수는 내일 책을 읽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고 싶어} 도서관에 갈 것이다.

主文章이 命令이나 提案 또는 疑問인 (42)와 같은 意圖·目的 構文에서도, 先行文의 時相은 主文章의 時相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42) a.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가라.
 b.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가자.
 c. 책을 읽 {-으러, -기 위하여, -으려고, -고자, -고 싶어} 도서관에 갔느냐?

(41), (42)에서 보여 주듯이 主文章의 時相에 관계없이 先行文에는 時相을 표시하는 先語末語尾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의미론적으로 意圖·目的 構文에서 先行文의 意圖나 目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後行 主文章의 행위나 상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주문장이 과거이건 현재이건 미래이건, 주문장이 이루어지는 時點을 기준으로 하여 先行

19) 金東植(1980) “現代國語 否定法の 研究”은 否定素 {못}이 他意否定, 評價否定的 뜻을 갖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文의 意圖나 目的이 이루어질 수 있는 時點은 항상 後時가 되는 것이다.

{-려고}가 단순히 豫想을 나타내는 構文에서도 時相은 意圖・目的 構文과 동일하다.

- (43) a. 어제는 반가운 손님이 오려고 까치가 울었다.
 b. 오늘도 반가운 손님이 오려고 까치가 운다.
 c. 내일은 반가운 손님이 오려고 까치가 울 것이다.

(43a)에서 반가운 손님이 이미 어제 왔거나 오지 않았거나 하는 사실과는 관계없이 先行文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은 主文章이 이루어진 다음이 된다. 이것은 意圖・目的 構文만이 아니라 豫想 構文에서도 先行文의 상태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즉, 意圖나 目的 또는 豫想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들 構文의 時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이 국어의 意圖・目的形들은 時相에 관해서는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그것은 意圖・目的 構文들이 先行文과 後行文의 순서를 바꾸어 副動詞 {-어}로 연결시킨 接續文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41), (42)에는 先行文과 後行文의 순서를 바꾸어 繼起的 관계를 보이는 {-어}로 연결시킨 접속문 “철수는 도서관에 책을 읽는다”가, (43)에는 “까치가 울어 반가운 손님이 온다”가 含意되어 있다.²⁰⁾ 이 사실에서 우리는 국어의 意圖・目的形들이 統辭論의으로도 副動詞 {-어}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려고}, {-고자}, {-고 싶어}에 補助動詞 {하다}가 직접 연결될 때에도 時相은 반드시 補助動詞에 의해 표시된다.

- (44) a. 철수는 책을 읽 [-으려고, -고자, -고 싶어] 하였다.

20) 이 경우에 논리적인 含意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즉,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갔다”가 眞이면 “도서관에 책을 읽었다”가 眞이 되고, 앞 문장이 僞이면 뒷 문장도 僞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話用論의으로 含意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 b. 철수는 책을 읽 (-으려고, -고자, -고 싶어) 한다.
 c. 철수는 책을 읽 (-으려고, -고자, -고 싶어) 할 것이다.

결국, 어떤 예들에서도 意圖·目的形들이 時相에 관해서는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이들이 모두 副動詞 {-어}를 포함하는 형태들이기 때문이다.

IV. 基本形態素와 意味機能

우리는 제 II 장에서 意圖·目的形 {-러}, {-려고}, {-고자}의 분석을 위하여 세가지 假說을 세웠고, 제 III 장에서는 意圖·目的 構文의 통사론적 제약을 몇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意圖·目的形들이 제 II 장에서 세운 假說대로 분석되기 위하여는, 분석된 각각의 基本形態素들이 갖는 통사기능과 의미기능이 제 III 장에서 검토한 意圖·目的 構文의 통사론적 제약은 물론 [意圖], [目的] 그리고 〔豫想〕이란 의미기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V. 1. 假說 1에서 {-고}과 {-어}로 분석된 {-러}는, 이들 意圖·目的形 가운데 {-려고}, {-고자}와 비교하여 통사론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 형태이다. 이 {-러}는 주문장의 서술어가 移動動詞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제외하면 {-기 위하여}와 유사한 통사론적 기능을 갖는다. 그것은 통사론적으로 이 {-러}를 動名詞 {-고}과 副動詞 {-어}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기 위하여}에서 語彙形態 [위하-]를 제외하면 名詞形 {-기}와 副動詞 {-어}가 남게 되는데, 이때 {-러}와 {-기 위하여}에서 副動詞 {-어}가 분석될 수 있다는 점이 일치하고, 動名詞 {-고}과 名詞形 {-기}는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기}의 [-決定性]이나 {-고}의 [-確實性]이란 의미는 모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나타낸다.²¹⁾

21) 沈在箕(1980) “名詞化的 意味機能”에서, 名詞形 {-음}은 動名詞 {-은}과 짝지워지 [+完了性] [+決定性]의 특성을 갖는 반면에 名詞形 {-기}는 動

{-러}의 의미로 기술되는 [意圖]나 [目的]은 移動하는 행위자가 심리적인 것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話者는 그 심리적인 결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話者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意圖]나 [目的]의 내용이 현실적으로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이미 실현된 것, 이미 이루어진 것이 [意圖]나 [目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러}의 의미인 [意圖]나 [目的]에는 動名詞 {-리}의 의미인 [-確實性]이 확인되고, 動名詞 {-리}의 분석은 의미론적으로도 뒷받침 된다.

그런데 動名詞 {-리}에는 時相 先語末語尾 {있}이 先行할 수 있는데, {-러}에는 {있}이 先行할 수 없다는 분포상의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러}에 副動詞 {-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副動詞 {-어}가 포함되어 있는 {있}이 先行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副動詞 {-어}는 소위 [完了]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²²⁾ 이 副動詞 {-어}가 [完了]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어}에도 時相 先語末語尾가 先行할 수 없다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러}는, [-確實性]이라는 動名詞 {-리}의 의미와 [完了]라는 副動詞 {-어}의 의미가 결합하여 [意圖]나 [目的]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즉, {-러}는 {-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어}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루어진 상태로 바꾸려는 行爲者의 마음을 나타낸다. 이 行爲者의 마음이 곧 [意圖]나 [目的]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名詞 {-을}과 짝지워져 [-完了性] [-決定性]의 특성을 가져 {-음}, {-기}는 {-은}, {-을}과 같은 대립을 보이는 것으로 기술하였고, 拙稿(1980) “動名詞와 後置詞 {은} {을}의 基底意味”에서도 動名詞 {-은}과 {-을}이 [+確實性]과 [-確實性]의 대립을 보이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22) 많은 연구들에서 副動詞 {-어}의 의미를 [完了]로 기술하고 있다. 筆者도 拙稿(1979) “國語 接續文에 대한 研究”에서 {-어}는 理由 등의 의미를 보일지라도 先行文과 後行文의 繼起的 關係를 나타내는 [完了]를 그 기본 의미로 한다고 기술하였다.

{-러}에 포함되어 있는 副動詞 {-어} 때문에, {-러}에 의한 接續文과 그 接續文의 先行文과 後行文의 순서를 바꾸어 {-어}로 연결한 接續文이 다음 (45), (46)의 a, b와 같이 의미론적으로 含意 관계를 맺게 된다.

- (45) a. 영화를 보러 극장에 왔다.
 b. 극장에 와 영화를 보았다.
 (46) a.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라.
 b. 극장에 가 영화를 보아라.

이상 {-러}에서 분석된 {-고}과 {-어}의 의미는 다른 意圖・目的形들에서 분석되는 {-고}과 {-어}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로 설명된다.

IV. 2. 假說 2에서 {-고}, {이}, {이-}, {-어}, {-고}로 분석된 {-려고}에도, {-러}에서 분석된 動名詞 {-고}과 副動詞 {-어}가 포함되어 있다. {-러}와 {-려고}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런데 {-려고}에는 動名詞 {-고}과 副動詞 {-어} 외에도 形式名詞 {이}, copula {이-}, 副動詞 {-고}가 더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려고}는 {-러}와 비교하여 意圖・目的 構文에서 통사론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려고}는 [意圖], [目的]뿐만 아니라 [豫想]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어 {-러}보다는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려고}에서 분석되는 動名詞 {-고}과 副動詞 {-어}의 존재는 {-러}에서 분석된 動名詞 {-고}과 副動詞 {-어}의 기능과 동일한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대부분의 意圖・目的 構文에서, {-러}를 {-려고}가 代置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동일한 基本形態素 {-고}과 {-어}를 그 구성요소로 하기 때문이다.

먼저 {-려고}에서 {-고}의 분석은 {-러}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47) a. 철수는 집에 가 {-려고, -러} 하였다.
 b. 철수는 집에 가 {-려고, ?-러} 옷을 입었다.

이미 앞에서 假說 2의 수립을 위해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47a)와 같은 動詞句 內包文이 아닌 (47b)와 같은 接續文 구조에서 {-려}보다는 {-려고}가 더 자연스럽다는 사실은, 이 {-고}가 接續의 {-고}임을 보여 준다. 더구나 15세기 국어에서는 {-려}만으로도 接續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고}가 결합한 {-려고}에 의해서 接續의 기능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은 이 {-고}가 곧 接續의 {-고}임을 입증해 준다.

이제 {-려고}의 분석에서 남은 문제는 形式名詞 {이}이다. {-려}와 비교하여, {-려고}가 통사론적 제약을 적게 받고 [豫想]의 의미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것은 形式名詞 {이}에 의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形式名詞 {이}의 존재는 {-려고}의 내부에 名詞化의 단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形式名詞 {이}에 의한 名詞化의 단계 때문에, 動名詞 {-고}와 副動詞 {-어}의 직접 결합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통사론적 제약이 제거되고 주문장의 서술어도 제약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形式名詞 {이}에 의해서 {-려고}는 [意圖]나 [目的] 외에도 [豫想]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copula {이-}는 形式名詞 {이}와 副動詞 {-어}의 결합을 위하여 구조적으로 인정해야 할 존재이다.

IV. 3. 假說 3에서 {-고}, {지-}, {-아}로 분석되었던 {-고자}는 통사론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고 싶어}와 유사한 기능을 보인다.

{-고 싶어}에서 語彙形態 {싶-}를 제외하면 副動詞 {-고}와 副動詞 {-어}가 남게 된다. 따라서 {-고자}에서도 副動詞 {-고}와 副動詞 {-아}가 분석되는 것이 당연해진다. 그러나, 이때의 {-고}는 {-려고}의 {-고}와 달리 內包的 {-고}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뒤에 補助動詞 {싶-}와 {지-}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고자}의 분석에서 문제는 {-고}와 {-아}를 제외한 補助動詞의 존재이다. {-고 싶어}의 경우 補助動詞 {싶-}가 [意圖]나 [目的]을 나타내는 형태임이 분명한 이상, {-고자}의 경우도 補助動詞 {지-}에서 역시 [意圖], [目的]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현재 서울말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나 방언에 남아 있는 {지-}가 바로

〔意圖〕나 〔目的〕을 나타내는 補助動詞이다. 바로 최현배(1955)의 「우리말본」에서 希望補助形容詞로 분류되었던 {지다}에서²³⁾ 우리는 〔意圖〕나 〔目的〕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고자}와 {-고 싶어}는 동일한 형태론적 구조를 이룬다. 물론, {-고자}에서 분석되는 內包的 {-고}는 〔意圖〕나 〔目的〕을 나타내는 補助動詞 {지-}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며, {-아}는 다른 意圖·目的形에서 분석되는 {-아}와 동일하게 [完了]의 기능을 갖는다.

이상에서 우리는 假說 1, 2, 3의 分析이, 분석된 基本形態素들의 의미기능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V. 結 言

국어의 意圖·目的 構文은 意圖·目的形 語尾 {-러}, {-려고}, {-고자}와 {-기 위하여}, {-고 싶어}등에 의해서 구성된다.

1. 우리는 意圖·目的形 語尾의 분석을 위하여, 먼저 이들을 15세기 국어의 {-라}, {-려}, {-고져}와 형태론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러}, {-려고}, {-고자}의 분석 가능성에 대해 다음 세가지 假說을 세울 수 있었다.

假說 1 : {-러}는 動名詞 {-르}과 副動詞 {-어}로 분석된다.

假說 2 : {-려고}는 動名詞 {-르}, 形式名詞 {이}, copula {이-}, 副動詞 {-어}, 副動詞 {-고}로 분석된다.

23) 최현배(1955) 「우리말본」 p. 312에서는 {-고자/-고져}는 어원적으로 {-고}에 '잡아'의 생략형인 {자}나 '집어'의 생략형인 {저}가 더해져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잡다', '집다'의 형태가 분명하지 않고 15세기 국어에는 {-고져}였으므로, 우리는 최현배(1955) 「우리말본」 p. 516에서 希望補助形容詞로 분류되었던 {지-}를 {-고자/-고져}에서 분석한다. 本稿에서는 補助動詞, 補助形容詞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補助動詞라는 用語로 통일하였다.

假說 3: {-고자}는 副動詞 {-고}, 補助動詞 {지-}, 副動詞 {-아}로 분석된다.

2. 그리고 意圖·目的의 形의 선택에 따른 통사론적 제약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意圖·目的의 形態들은 각각 고유한 통사론적 제약과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 그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앞 페이지와 같다.

3. 우리는 假說대로 분석한 기본 형태소들의 의미를 결합하여, {-러}, {-려고}, {-고자}가 [意圖] [目的] 또는 [豫想]이란 의미를 갖게 되는 근거를 설명할 수 있었고, 또한 意圖·目的의 形의 분석을 토대로 앞 페이지의 도표와 같은 통사론적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었다.

意圖·目的의 形 모두에서 分析된 副動詞 {-어}는 [完了]의 의미를 갖는데, 意圖·目的의 構文이 時相에서 공통점을 보이는 이유는 이 {-어}에 의해 설명되었다. 그리고 {-러}와 {-려고}에서 분석된 動名詞 {-리}은 [確實性]의 의미를, {-고자}에서 분석된 補助動詞 {지-}는 [意圖], [目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한편, {-려고}에서 {-고}는 接續, {-고자}에서 {-고}는 內包의 통사기능을 갖는 존재로 설명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우리는 국어의 意圖·目的의 形들을 모두 動名詞나 副動詞로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 고 문 헌

- 金東植(1980) “現代國語 否定法の 研究”, 「國語研究」42號
 金完鎭(1970) “文接續의 ‘와’와 句接續의 ‘와’”, 「語學研究」6卷 2號
 沈在箕(1980) “名詞化的 意味機能”, 「언어」5권 1호
 李基文(1972) 「改訂 國語史概說」民衆書館
 李崇寧(1961) 「中世國語文法」乙酉文化社
 최현배(1955) 「우리말본」(김고고집판) 정음사

허 응(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홍재성(1982) “타동성 규정의 한 문제”, 國語學會 口頭發表

拙稿(1979) “國語 接續文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40號

(1980) “動名詞와 後置詞 {은} {을}의 基底意味”, 「震檀學報」50號

Gruber, J.S. (1976) 「Lexical Structures in Syntax and Semantics」
Amsterdam: North-Holland.

Lakoff, G. and Peters, S. (1966) “Phrasal Conjunction and Symmetric
Predicates,” in Reibel, D.A. and Schane. (eds) 「Modern Studies
in English」 Prentice-Hall, Inc.

Ramstedt. G.J. (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